

화두 참구 믿음이 가장 중요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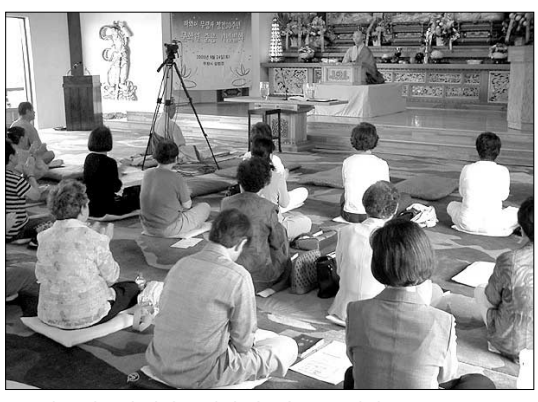
주제:간화선의 기초수행-발심과 화두참구
법주: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 현산 스님은 1961년 도천 스님(현 화엄사 조실)을 은사로 출가, 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부산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출가후 작은 암자의 주지도 단 한차례 지낸 적이 없이 45년간 수행자로 지내온 현산 스님은 당대 선지식인 동산·경봉·전강·금오 스님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97년부터 화엄사 선등선원장을 맡고 있으며, 은사 도천 스님의 선농일치(禪農一致) 가르침을 이어받아 직접 목장감을 끼고 절 살림살이를 돌보고 있다.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을 가을 하와이의 불자들은 행복하다. 바쁜 생활 속에서 '나'를 들여다 볼 여가를 얻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산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다. 욕망과 번뇌가 있는 한 고통과 괴로움도 있기 마련. 하와이의 불자들은 무량사주지 도현(가 현대불교신원과 공동주최하는 하와이 간화선 대법회에서 자신의 '지금 여기'를 들여다 보고 있다. 와이키키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하와이 보타산 무량사. 현지시각으로 10월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월 3일 오전 5시)부터 설법전에서 '무량사 강건 30주년·문화원 준공기념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가 열렸다.

무엇이 보고 듣는가?
법주는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 법문 주제는 '간화선의 기초수행-발심과 화두참구'다. 간간히 비가 내리는 일기에도 불구하고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수좌 무문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장 전이순 보살, 신도회 부녀회장 신영자 보살 등 사부대중이 설법전을 가득 메웠다
법석에 오른 현산 스님은 눈을 지긋이 감고 침묵했다. 좌중도 조용했다. 침묵과 고요.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간절한 발심구법의 시간이고 가장 열정적인 설법의 시간일지도 모



100여 불자들이 현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내면의 진면목 찾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 간화선은 밖에서 구할 수 없는 마음의 도리

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당안은 엄숙했다. 이윽고 현산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다가 '땀' 하고 한뼉 내리친다. "무엇이 보고 들으니까? 바로 이 보고 듣는 이 놈의 진면목을 깨닫는 것이 간화선의 핵심입니다." 법문은 침묵과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조용한 행동과 주장자를 내리치는 동작으로 시작됐다. 좌중은 더욱 숙연해졌다. "화두 참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본래 진면목을 깨닫는 도리를 믿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지만 현산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법회에 동참한 오드리와 루오이부부의 눈동자에는 흥기가 가득하다. 법당안에서는 이들 부부를 포함해 5명의 현지인이 현산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발원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간화선 법문이 아직까지 일반 대중에게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참나를 찾는 이 법을 잘 몰라도 듣다 보면 법의 종자가 쌓이고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진면목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산 스님의 법문은 하와이 불자들의 '눈 높이'에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은 도의 어머니'임을 강조하며 간화선 수행의 뿌리도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현산 스님은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다. 현산 스님은 육조 혜능 스님과 남악 회양 스님의 일화를 통해 전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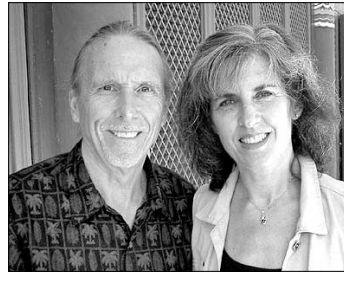
"회양 스님이 자신의 경지를 스승에게 보이기 위해 혜능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혜능 스님이 '어째서 왔느냐?'고 물으니 회양 스님이 '도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혜능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라고 물었는데 그만 회양 스님은 말문이 꽉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8년을 수행정진하고 다시 스승을 찾아 갔습니다. 회양 스님은 '가령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인가를 받았습니니다. 간화선이란 절대 밖에서 구할 수 없는 마음의 도리인 셈입니다."

내 마음의 지혜를 보라
한마디 답을 구하기 위해 8년을 각고정진한 회양 스님의 수행정진을 분반야야 한다는 것이 현산 스님의 고구정병한 가르침이다. 그 한마디 대답이야말로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꿰뚫는 열쇠이므로 열쇠를 찾기까지는 오직 열쇠생각만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화두이기 때문이다. 법회에 동참한 교포 신도들은 현산 스님이 선사들의 일화를 예를 들며 간화선의 도리를 쉽게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희심의 미소를 내보였다. 92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동참한 문교각성 보살은 "한국의 큰 스님을 이곳 하와이에서 보는 것도 큰 복인데 이렇게 자상한 법문을 들으니 그저 즐겁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현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마조 스님 일화 등을 소개하며 본래 진면목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밖에서 법을 구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무한 지혜와 복덕이 구축되어 있음을 바로 보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글·사진/하와이-김두식 기자

인터뷰 / 루오이·오드리 부부

"특별한 에너지로 마음이 짝 차는 느낌"

한국에서 1968년 군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루오이(RUOY·사진 왼쪽)씨는 부인 오드리(AUDREY)씨와 함께 이번 간화선 법회에 동참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무량사에서 열리는 위빠사나 교실에서 명상을 배우고 있는 이들 부부는 한국의 간화선을 잘 모르지만 큰스님이 오신다기에 법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현지 사정으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들 부부는 법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정좌를 현산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루오이씨는 "비록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목탁을 치며 예불을 올리는 모습에서 마음에 평온함을 느꼈다"며 "특히 큰스님이 법문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로 인해 마음이 짝 차는 것 같았으며 정신이 맑아졌다"고 법회 동참 소감을 밝혔다. 부인 오드리씨도 "한국 불교는 자연 친화적이고 내면의 마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총천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같다"며 "큰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소리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와 모습에서 내면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모저모

간화선법회 시간 오후에서 오전 10시로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였던 간화선 법회시간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 두 번째 법회부터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무량사 신도들이 대부분 가계를 운영하고 있어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관계로 오후에 사찰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 법회 시간을 변경하고 현지 라디오 방송, 유선텔레비전 방송, 한국일보 하와이판, 중앙일보 하와이판 등에 광고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무량사 신도"

○...간화선 법회가 열린 설법전은 3분의 2 정도의 공간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어 신발을 벗고 올라가 가부좌로 정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신발을 신은 채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이가 많은 보살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인 셈이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맨 뒷 의자에는 노보살들로 가득했다. 그 가운데 법복을 가지런히 입고 있는 박선화, 문묘각성, 천문수화 보살,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일요일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살은 30년 동안 진행되어온 무량사 불사를 위해 자원 봉사로 작업 인부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김장담그기 등 사중의 큰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해 신도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하와이 한국성당 신부님도 한자리

○...현산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하와이 한국 성당 최시문 신부도 신도 박마리아와 함께 법회에 참석했다. 최시문 신부는 법회가 끝이 난후 현산 스님을 직접 찾아가 법문을 잘 들었다는 인사를 하고 무량사를 떠났다. 최시문 신부는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김정국 사무장조차도 최시문 신부의 참석을 알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지 않게 다녀갔다.

신비한 손 天—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중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氣功研究會는

13년전(1993년)설립되어 파워붕, 신선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 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 637-9810(경북영주수련원)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50기 - 10월 20일 오후2시 ~ 23일 12시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일 선착순 20명 마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는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 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약취가 진동올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